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장기 표류 우려

실무위서 국토부-기재부 막판 조율 결렬

국비 4846억 면제·기관설립 문제 걸림돌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이 정부 차입금 우선 면제 문제로 관련 정부 부처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부지를 매입할 민간기업도 제때 나타나지 않아 장기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수시는 26일 “지난 23일 열렸던 여수박람회 제19차 정부지원실무위원회에서 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국비 4846억원을 선투자한 기획재정부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후활용 방안으로 박람회조직위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국토해양부가 잠정 확정한 세계

적 규모의 해양복합관광리조트 육성 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는 국제관, 한국관, 엑스포홀 등 종차시설을 중심으로 핵심 콘텐츠 관광상품화, 크루즈 관광, 요트·마리나 사업, 엑스포 테마공원 조성, 시푸드사업, 해양 힐링센터·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의 사업내용이 담겨 있다. 또 빅오·설비는 멀티미디어쇼·해상분수쇼·수상공연 등을 활용한 특화상설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엑스포디자털갤러리, 스카이타워 등도 각종 공연과 이벤트 장소로 이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비 투자액 4846억원 면제와 사후활용을 맡을 기관 설립 문제 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우선 사후활용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정부 투자액을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정부 투자액 우선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여수시 등은 원활한 사후활용을 위해 추가 국비 지원과 정부 투자금 일부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사후활용 과정에 국비 추가 지원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 기재부는 빚 청산을 위해 부지 대부분은 물론 영구시설물 7곳 중 한 국관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도 모두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한국관 등 일부 시설물을 남겨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격을 살리는 방안으

로 사후활용하자는 국토부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박람회 조직위와 국토부가 최근 마련한 사후활용안에 따라 공사 형태의 운영주체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부처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 등은 수익성을 담보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 창립을 거론했지만 기재부는 ‘주가 국고 지원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국고 지원없는 법인 설립은 전남도와 여수시에 예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의 사후활용방안은 오는 28일 장차관급이 참석하는 정부 지원위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광주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정상 추진

토지소유자 55% 찬성

일부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치질을 빛은 광주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하남 3지구 개발과 관련해 토지소유자 6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친·반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54.9%인 346명이 개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있어 도시 정비법에 따라 설문 조사를 실시, 반대하는 토지소유자가 절반을 넘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하려고 했

었다”며 “개발에 찬성하는 토지소유자가 절반을 넘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가 완충녹지를 조성하면 감보울(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출받는 비율이 많아져 보상액이 적어진다며 개발에 반대해왔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개발구역 내 녹지비율이 13%가 되려면 완충녹지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광주시는 모두 660억 원(보상비 96 억 원, 공사비 337억 원, 용역비 등

227억 원)을 들여 광산구 하남동과 흑석동, 장덕동 일대 61만1000㎡를 내년 12월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편, 하남 3지구는 하남일반산단과 하남2택지개발사업구역 및 수완택지개발사업지구, 하남역 사이에 위치한 미개발지역이다.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파티마(여·51) 산페드로시 사회복지국장은 “이제민과 수몰지역은 많은데 의료용품과 각종 식료품이 부족한 상태”라며 “많은 구호팀들이 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봉사단체인 (사)희망나루 긴급구호단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장 큰 홍수피해를 입은 이곳 탄다얀 자치구와, 필리핀 이주여성 파스파레니엠씨(여·41)의 친정마을인 칼루칸(Caloocan)시 판가람 마을 등 2곳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쳤다.

긴급 구호팀은 광주 미르치파 박석인 원장을 단장으로 아이퍼스트 아동 병원 전성현 원장, 광주병원 김상훈 내과 원장,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 등 4명의 의사와 각 병원의 간호사, 의료진 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세 계약기 전시 등 다양한 기획행사도 마련된다. 세계 20여개국의 민속공연팀 참가가 확정됐다.

한편 전남도는 행사의 기획, 진행 등을 위한 주관 대행사를 오는 9월 6일까지 모집한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세 계약기 전시 등 다양한 기획행사도 마련된다. 세계 20여개국의 민속공연팀 참가가 확정됐다.

한편 전남도는 행사는 기획, 진행 등을 위한 주관 대행사를 오는 9월 6일까지 모집한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세 계약기 전시 등 다양한 기획행사도 마련된다. 세계 20여개국의 민속공연팀 참가가 확정됐다.

한편 전남도는 행사는 기획, 진행 등을 위한 주관 대행사를 오는 9월 6일까지 모집한다.

F1 기간 20개국 50개팀 참가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 12~13일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국내 시도별 민속공연단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민속음악 공연단의 이색 공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 12~13일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국내 시도별 민속공연단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민속음악 공연단의 이색 공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 12~13일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국내 시도별 민속공연단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민속음악 공연단의 이색 공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 12~13일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국내 시도별 민속공연단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민속음악 공연단의 이색 공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 12~13일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국내 시도별 민속공연단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민속음악 공연단의 이색 공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 12~13일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국내 시도별 민속공연단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민속음악 공연단의 이색 공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 12~13일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국내 시도별 민속공연단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민속음악 공연단의 이색 공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 12~13일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국내 시도별 민속공연단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민속음악 공연단의 이색 공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 12~13일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국내 시도별 민속공연단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민속음악 공연단의 이색 공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 12~13일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국내 시도별 민속공연단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민속음악 공연단의 이색 공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 12~13일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국내 시도별 민속공연단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민속음악 공연단의 이색 공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광객 등

전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에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은 F1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 마

련했다.

오는 10월